

의미 없음.

김민재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에서는, 화가인 '폴 세잔' 그리고 작가인 '에밀 졸라'의 관계를 다룬다. 그들은 서로를 복돋아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충고를 하기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서로의 성장 배경, 여자관계, 성격, 재능 등 많은 것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영화 속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보며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생각한다.

·
·
·

아침에 눈을 뜬다.

눈을 비비며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지난 밤을 함께 보냈던 스마트폰을 찾는다.

격하게 잔 탓일까, 충전선이 뽑혔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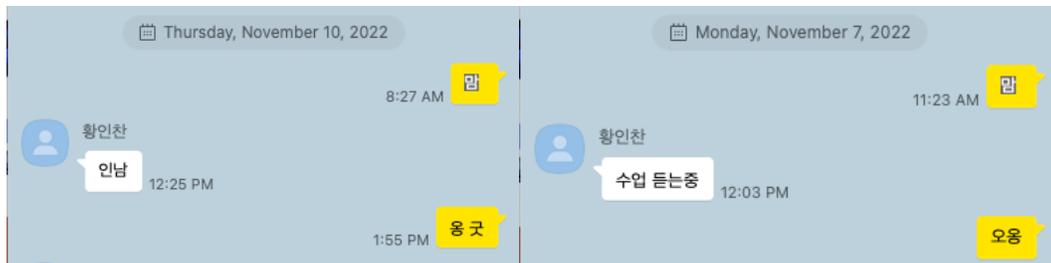
10 퍼센트도 안 되는 배터리를 유지한 채 화면을 밝게 비춘다.

습관적으로 카카오톡을 들어간다.

그 친구에게 의미 없는 아침 인사 문자가 와있다.

나는 의미 없는 답장을 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한다.

·
·
·



보통 '친구'가 되는 과정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지인'으로 시작해서 사이가 가까워져 '친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지인'과 '친구'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의미'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지인'의 단계에서는 단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계산에 의해서 인연을 이어간다. 예를 들어 지난 과제를 물어본다거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다. 적어도 내 경험에는 그렇다.

그럼 '친구'란 무엇일까? 의미 없이 편하게 일상에 스며들어, 마치 우리가 생각하고 숨을 쉬고 눈을 깜박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없이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친구는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기에 그 관계는 마치 오래달리기 처럼,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이유를 찾는 관계는 금방 지치고 말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지인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친구와의 관계는 의미가 없어야 한다.